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지선 스님 그 당시에 아주 뭐 가장 지선 스님 그 뭐냐 인터뷰도 하고 전부 이런 내용들의 뭐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쪽 몇 권 다른 호수도 뒤쪽으로 보십시오. 좀 더 있습니다. 하고 또 요렇게 인제 요렇게 인제 뭐냐 10·27법난 규명하라고 하는 집회하는 거 요런 것도 직접 취재해서 다하고 어요게 인제 대승불교운동 박성배 교수님 어 대답도 하고...”

민주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여 잡지에 수록하였다. 최연은 편집장이었으며 대표는 유봉(여연 스님)이며 발행인을 겸했다. 10호까지 발행했다. 창간호의 보존을 위해 최연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이는 자료 저장(아카이브)이 되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창간호 표지 그림은 스님들이 온집한 모습이다. 승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 있게 표현한 점이다. 이 그림은 해인사 승려대회 개최, 정토구현전 국승가회의 활동, 승가단체가 새롭게 탄생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승가단체의 활동을 함축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통일운동으로 전향된 경우가 있었다. 최연 또한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북

한의 조불련(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스님 중심의 어떤 어떤 전국적인 틀의 어떤 운동단체들이 나온 게 전불련(전국불교운동연합)이고 그 다음에 통일불(조국통일불교협회)이고 그 다음에 평불협(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법타 스님 다 그러니까 스님 개인의 원력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그제 그리고 1987년 이전같이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통일운동에는 그렇게 가치를 얹았어요. 대부분 다시 노동운동으로 돌아갔지. 그래 통일운동역량은 그렇게 많은 재가 역량이 다 투여된 거는 아니예요. 그래 그래서 스님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몇몇의 어떤 사람들이 그 뒤에 인제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주된 주력군들은 다시 노동운동으로...”

통일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달리 승가 위주로 진행됐음을 볼 수 있다. 전불련은 지선 스님이 주도했으며, 평불협은 법타 스님이 주도했다. 불교운동의 새로운 모색으로서 승려 아닌 일반인들은 보충의 역할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민불련은 승가와 속인이 함께 주도했다면 통일운동은 승가의 주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좋은 빛들 범륜 스님하고 같이 철에 인제 만들었죠. 박광서 교수 모시고 해 가지고 그 그제 인제 좋은 빛들의 전신이 본래

불교계 북한통, 통일운동 나서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자리한 전법회관

인제 사회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민족 서로 돕기 그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본부로 이렇게 인제 시작을 했어요. 그제 박광서 교수 저고 다음 범륜 스님해서 범륜 스님 원력으로 주욱하다가 박광서 교수는 떨어져 나가고 재가연대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지금까지 ‘좋은 빛들’로 이름을 바꿔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1992년도 1993년도 되면 이제 중단에 인제 중단에 사태가 일어나 죠 그죠? 중단민주화라 그러지요.”

“중앙신도회가 생기면서 제가 그 사무총

장을 들어갔어요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들어가면서 전국신도회하고 통합을 했지요 통합을 해서 인제 하나의 어떤 줄기로 있잖아 딱 만들고 그 뒤로 계속 저 뭐냐 남북교류사업 교류사업을 인제 중앙신도회에서 하고 그래서 그 고런 집에 있어서 보수적인 어떤 불교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어떤 첫 사례를 인제 남긴 거지요. 고 뒤로 이제 요세 많이 나오는 문화재 반환사업 이것도 중앙신도회에서 제안을 해서 의결 반납 계속 하고 있지요.”

1994년 중단민주화과정에서 최연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신도 단체로서 북한의 조불련과 활발한 교류운동을 펼쳤다. 특히 범륜 스님이 설립한 국제구호단체 JTS와 같이 비정부기구인 NGO와 같은 봉사단체들의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최연은 또 불교환경연대의 출범에 기여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예코북단의 출범 역시 최연의 협력에 있었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내면적 동력을 중심으로 최연은 인문학 기행을 통해 문화콘텐츠에 다거하는 사회운동을 추진한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천민 구제의 생불 에이존(叡尊)

위정자 마음까지 움직여

중세 계율부흥운동은 물론 비인(非人), 즉 천민계층 구제에 앞장섰던 에이존은 교토(京都) 다이고지(醍醐寺)의 밀교승으로 승려인생을 시작했다. 밀교의 수행인 18도법·금강계법·태장계법·호마법의 4도가행(四度加行)을 마치고, 마침내 28세 때에는 전법관정(傳法灌頂)까지 마쳐 아사리(阿梨)가 되었다.

그는 황폐해진 사이다지로 내려가 남도진언종을 창립하였다. 또한 일본 율종의 조사인 감진(鑑眞)이 중시한 사본 율에 반해 진언종의 종조인 쿠카이(空海)가 중점을 둔 심송율을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서민에게도 눈을 돌려 일상생활 가운데에 살아 있는 계율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행각하는 중 많은 제자나 신자들을 모았다. 가르침의 핵심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사이다지서 남도진언종 개창하고 불행한 이웃들 위한 자선행 펼쳐

속에서 엄하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자비심 아래 가난한 사람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중세 신불교가 우후죽순 발흥하는 시기, 승려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서원하여 36세 때 토다이지(東大寺) 계단 앞에서 카쿠소(覺盛), 엔세이(圓晴), 우곤(有嚴) 등과 함께 스스로 계를 주고받는 자서수계(自誓授戒)를 단행하였다.

이후 문자 그대로 흥정(興正)보살로서 50년여 년 동안 약 7만 명에게 보살 계를 주고, 700여 사원을 신축 혹은 재건하였다.

수업을 금지하고 방생하기를 1400여 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350여 회나 행했다.

특히 그는 집단적으로 계를 주었는데, 선을 닦고 악을 방지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수여하였다.

그는 모든 계율은 성불의 가장 뛰어난 인연으로 보았다. 또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이다지서 율원에서 자선구제 사업



에이존 좌상

의 일환으로 대중들에게 차회를 열거나 국태민안을 위해 신전 앞에서도 기원하고 차를 배품었다.

현재 사이다지에서는 오차모리(大茶盛)라고 하는 행사가 지금도 매년 봄·가을에 열리고 있는데 이에 기원한 것이다. 이는 직경 30cm, 무게 7kg의 큰 다기에 말차를 만들어 온집한 대중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는 차회를 말한 다.

그는 마침내 당시에 정권을 잡은 무사계급의 권력자들이 잇따라 귀의함에 따라 무사집단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당시 무사들이 연 막부(幕府)는 수도와 동떨어진 동부의 카마쿠라(鎌倉)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 만 몇 번의 요청을 받은 끝에 그들을 교화할 것을 결심했다.

권력자들은 에이존을 모시기 위해 당시 대사원을 기진(寄進)하고자 했지만, 그는 주인도 없고 인연도 없는 절을 원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도록 삼성금지의 설법을 펼쳤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제로 보여주 기 위해 불행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나누어주었다. 실권자들은 이러한 설법과 자비 실천행에 목격하고 감동하여 자신의 영지에서 살생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박수경 소장의 자연주의 교육

자식이 멋지게 자라서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이면 누구나 가지는 희망사항 일 것이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세계 어느 부모와 비교하여도 우선순위에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다. 영재교육의 열풍 속에서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는 특별 후속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별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특별중, 특별고,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분류되고 세분화된 특별 프로그램들.

얼마 전 우연히 접하게 된 유아 학습지를 보고 놀라와 동시에 격정스런 마음이 들었다. 감각기에 있는 유아에게 지필 학습지를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법칙이 무너지는 것별 오례전의 일이다. 하지만 인건 해도 너무나 싫은 생각이 든다. 3-4세 아이에게 초등 단계의 학습지를 하게하다니!

나는 평소에도 엄마들을 만나면 “당신의 자녀는 초능력자예요”라고 말해준다. 대부



분의 엄마들이 내 말에 수긍을 하지 않는다. “우리 아기가 초능력자예요?” 전혀 믿지 않는 태도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생존을 위한 기본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뛰어난 미각과 멀리 있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청각,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촉각, 그리고 후각, 시각. 이 모든 감각에 아이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들과 감각놀이 하는 것을 즐긴

아이는 초능력자로 태어난다

감각을 다양하게 자극해 주는 놀이를 많이 하였다. 다양한 과일의 향을 느끼게 하고 야채, 나무, 꽃들의 다양한 면을 여러 감각들을 동원하여 느끼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애를 썼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위협하고 힘들고 지저분해진다는 부정적 면보다 초능력으로 타고난 감각을 최대한 발산하는 긍정적 면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다.

아이들의 기억의 저장고에 좋은 감각의 기억장치를 많이 만들기 위해 유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각적 자극에 집중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감각 놀이에 집중하다보면 부모의 마음도 아이의 눈높이에 어느 새 동화돼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인공적 장난감보다 주변에 있는 자연물이 아이의 감각 자극에 좋은 교구가 된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소장

Advertisement for 'Korean Dharma Research Institute' (韓國說法研修院). It promotes a course on 'Dharma Practice' (설법) and offers a 40-year experience in training Buddhist leaders.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10-7248-1567 and 02-747-1567, and a website www.taotemple.net.

Advertisement for 'Korean Buddhist All-Purpose Conference' (한국 불교 알평승가회). It features a 5th general assembly (제5차 모임) on November 28th. The event includes a lecture by a Buddhist leader, a performance, and a meal. Registration is open to all.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10-5290-4209 and 053-325-0400.

Advertisement for 'Dharma Practice' (정확도 효과성 제일) by Taotemple. It lists various Buddhist courses and materials for sale, including sutra study, chanting, and meditation. Prices range from 50,000 to 350,000 KRW.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2-738-8680 and 070-7514-8680.